

본산국<sup>1)</sup>은, 아방국(父)은 종달리(終達里)<sup>2)</sup> 어멍국(母) 맹호부인.<sup>3)</sup> 중국(中國) 대국(大國)서 솟아난 한집.

글공부 활공부<sup>4)</sup>다 말을 안들어 아방(父) 눈에 글리나고<sup>4)</sup> 어멍(母) 눈에 시찌나<sup>5)</sup> 삼부체(三夫妻)를 귀양정베(定配) 마련<sup>6)</sup>난 제주남방국(濟州南方國)을 나올 때, 할락산(漢拏山) 테역장오리 물장오리<sup>6)</sup> 좌정(坐定)하여 좌우천기(左右天機)를 살펴 보난 좌정<sup>7)</sup> 훌 디 못뒈다.

오백장군(五百將軍)<sup>7)</sup> 오백선정(五百先生) 구경허여 չ츰<sup>8)</sup> ㅊ츰 누려오는 게 송당(松堂里)을 오라네<sup>8)</sup> 금백주<sup>9)</sup>를 대국의 대부인(大國大婦人) 설연<sup>9)</sup>고<sup>10)</sup> 사는디, 대부분인이 목이 정정 물라져 물을 먹젠<sup>10)</sup> 흐는 게 물혹엣 물<sup>11)</sup>을 먹다네 둋솔(豚毛)이 코레레<sup>12)</sup> 질런<sup>13)</sup> 피가 난다.

집의를 와시난 냄편(男便)이 말을 흐뒈

『어찌<sup>14)</sup> 난 부정(不淨)이 만만<sup>15)</sup>다. 대정(大靜) 마래섬(馬羅島)으로 귀양정베(定配) 나아가라.』

귀양정베 마련<sup>6)</sup>고 요왕국(龍王國)의 들어가 요왕국 말잣뜰아기(龍王國末女) 소첩(小妾)을 얻어 들어오니, 소부인(小婦人)이 말을 흐뒈

『대국의 대부인은 어디 갔읍네까?』

『부정(不淨)이 만만허여 대정(大靜) 마래섬(馬羅島)으로 귀양정베(定配) 보냈노라.』

『이거 무슨 말이우까. 귀양을 풀려사 흡네다.』

소부인(小婦人) 대부인 귀양을 풀리저 둘려 간 보니, 일곱아길 나나 질람더라.<sup>14)</sup> 걸레<sup>15)</sup>도 일곱 지성귀<sup>16)</sup>도 일곱을 허연 가시난<sup>17)</sup>

『느<sup>18)</sup> 아니민 내 무사<sup>19)</sup> 귀양 오느니?』

씨앗싸움을 흐는디, 소부인이

1) 난산국과 같음.

2) 구좌면(舊左面)의 지명.

3) 성산면 온평리(城山面溫坪里) 본향당신.

4) 눈에 거슬리어의 뜻.

5) 글리나다와 같은 뜻.

6) 한라산 중허리에 있는 소명(沼名).

7) 한라산 서쪽 허리에 있는 기암군(奇岩群)

8) 와서.

9) 송당리(松堂里) 당신(堂神).

10) 마련하고의 뜻.

11) 음푹 팬 데 괸 물.

12) 코로. 코에.

13) 찔러서.

14) 기르고 있더라.

15) 아기 업는 멜빵.

16) 기저귀.

17) 갔으니. 갔더니.

18) 너.

19) 왜.

『내 그른 게 아니우다. 성님 냄편(男便)네가 그르우다.』

『그레민 느가 일곱아길 업엉 냄편네안틸<sup>20)</sup> 가라.』

업져내연<sup>21)</sup> 보내여 두고 큰부인은 갯맛(海??)으로 개보말<sup>22)</sup> 줄어 먹으명<sup>23)</sup> 알손당(下松堂里) 냄편을 쫓아 오라 삼부체(三夫妻)가 살아가는디, 뜰주식<sup>24)</sup> 손지방상<sup>25)</sup> 이른??듭(七十八) 아들주 손 ??든??듭(八十八) 나고 삽데다.

어명(母) 아방(父)은 그디 살아봐도 훌 일이 웃어<sup>26)</sup> 전지(田地) 제산(財產) 주식(子息)신대 물려 줘 두고 나오는디 좌우(左右)를 훌펴보니, 수산(水山) 울레무루<sup>27)</sup>가 좌정(坐定) 훌만호다 허여 좌 정호 하로산<sup>28)</sup> 삼천벵매또 일만팔천초깃발.<sup>29)</sup>

정월(正月) 초이틀 신과세(新過歲)

정월 보름(望日) 영등제

이월 열사을(十三日) 영등송별제

칠월 ??드레(八日) 마불림제

동짓둘(十一月) 열나을(十四日) 시만국대제일(新萬??大祭日) 받읍네다.

- 城山面 水山里 女巫 趙玉仙 口誦

현용준, 『제주도 무속자료사전』, 신구문화사, 1980, pp.686-688.

---

20) 냄편네한테를.

21) 업혀서. 업혀내어서.

22) 고등류인데 아주 작은 것.

23) 주워 먹으면서.

24) 딸자식.

25) 손자친족.

26) 없어.

27) 수산리(水山里)의 지명. 본향당이 있는 곳.

28) 한라산이란 뜻으로 이 당의 신명(神名).

29) 이 당신(堂神)의 하위신이며 당신을 호위하고 심부름하는 신.